보컬그룹 비디유, 간절함으로 '빌드업'한 서사

엠넷 '빌드업 :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 우승팀
빛새온·승훈·제이창, 2년간 기존 팀 활동 병행
김민서, 유일한 연습생 "데뷔 설레고 기대돼"
"올라운더 멤버 구성…비투비·마마무 롤모델"

프로젝트 그룹 '비디유(B.D.U)'의 시작은 달랐다. 보컬그룹을 결성하는 오디션이지만 목표는 제각각이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함으로 뛰어들었다. 짧고도 긴 4개월의 시간 동안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가능성을 인정받은 순간, 목표는 하나로 모였다. 원팀으로서 다음 스텝을 밟는 것. 바라보는 곳이 같으니 자연스럽게 길은 열렸다.

비디유는 지난 3월 종영한 엠넷(Mnet) 오디션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이하 '빌드업')에서 발탁된 빛새온(28·김상연)·승훈(25·김승훈)·제이창(23)·김민서(21)로 구성된 그룹이다. 방송에서는 멤버별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훈민제빛'이라는 팀이었다. 비디유는 'Boys Define Universe'의 약자로,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4인이 모여 새로운 유니버스를 창조해나간다는 의미다.

김민서를 제외한 3명은 활동하고 있던 소속팀이 있다. 빛새온과 승훈은 2019년 각각 '몬트'와 'CIX(씨아이엑스)' 메인보컬로 데뷔했다. 제이창은 지난해 솔로 가수로 데뷔하고 곧바로 그룹 '원팩트' 메인보컬로 재데뷔를 치렀다. 김민서는 소속사 없이 연습생 신분으로 '빌드업'에 참가해 이번이 첫 데뷔가 됐다.

모든 멤버가 오디션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빛새온은 데뷔 전후로 JTBC '믹스나인', '피크타임'에 참가했다. 승훈은 데뷔 전 YG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 트레저 멤버를 선발하는 'YG 보석함'에 출연했다. 제이창은 MBC TV '언더나인틴', 엠넷 '보이즈플래닛'으로 이름을 알렸다. 김민서는 IST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 ATBO(에이티비오) 데뷔조 결성 오디션 '디 오리진 - 에이, 비, 오어 왓?(THE ORIGIN - A, B, Or What?)'에 참가한 이력이 있다.

'빌드업'은 개인 참가자로 시작해 듀엣, 3인조, 4인조로 조합을 해나가면서 최종 4인조 그룹으로 데뷔하는 서바이벌이다. 참가자들의 선택으로 팀이 정해지고, 곡 선정도 직접 했다. 비디유는 혈혈단신으로 시작해 프로그램에서 팀이 된 경우다. 서바이벌이 진행되는 4개월 중 팀을 결성해서 합을 맞춰본 지는 약 두 달이다. 이들은 2년간 활동을 보장받고 우승 상금 1억을 받았다. 상반기 안에 데뷔 앨범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팬콘서트 해외 투어도 계획 중이다.

멤버들은 오디션에 참가하기까지 고민한 시간도, 계기도 모두 달랐다. 승훈은 지난해 11월에 오디션 소식을 듣고 12월 첫 촬영에 임했다. 반면 제이는 첫 촬영 일주일 전, 김민서는 5일 전에 합류하게 됐다. 모두 다른 상황에 놓여있기에 고민의 모양도 다양했다.

민서는 첫 오디션 최종에서 탈락한 뒤 연습생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아이돌의 꿈을 접었다. 소속사 없이 1년간 방황의 시기를 보내던 중, '빌드업'을 만났다. 다리 부상을 당해 춤을 추기 어려워졌던 상황이라 보컬그룹이라는 타이틀이 새로운 꿈의 길을 열어주는 듯했다. "반가웠어요. 전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나가자마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기도 했는데 좋은 자극제가 될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제이창은 원팩트로 데뷔하자마자 다시 오디션에 뛰어든 경우다. '보이즈플래닛'에서 톱10에 들며 실력도 인정받았고, 이제 막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가 새로운 그룹에 도전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제이창의 생각은 달랐다. "'보이즈플래닛'에서 제 장점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빌드업'이 뭔지 알게 됐을 때 부터 무조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원팩트 멤버들도 모두 '보이즈플래닛' 출신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주라고 응원해 줬고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에 증명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큰 성과를 얻었으니 서바이벌은 끝이에요. 앞으로 더 성장할 자신이 생겼으니 또 서바이벌에 나갈 일은 없다고 확신합니다."(웃음)

빛새온 역시 '피크타임'을 마무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나오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추천했다. 이때까지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홀로 보컬로 도전하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나가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도 그 경험이 앞으로 노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서바이벌이라는 생각으로 눈 딱 감고 참가해 보자 했어요. 사실 자신이 없었거든요. 실패 또한 좋은 경험이라는 마인드로 시작했어요."

승훈은 깊은 슬럼프에 빠져있는 시기였다. 보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팬들도 다 알 정도로 우울감이 왔었다. 그래서 더더욱 '빌드업'이 기회로 다가왔다. "고민 없이 나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잘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실력으로 부딪혀 보고 싶었고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팬들이 걱정했는데 처음부터 프로젝트 그룹과 원래 팀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고 들어서 고민없이 도전한 거예요. 서바이벌이라서 걱정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두 가지 기회가 생긴 거고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멤버들도 끼와 실력을 보여주고 오라고 해서 힘이 됐고요."

이들을 한 팀으로 모은 건 제이창이다. 멤버 선발권이 있었던 그는 올라운더 그룹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세 명을 골랐다. 제이는 철저하게 성격이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실력과 이미지만 생각했다. "빛새온 형은 오래 봐서 어떤 스타일인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둘이 함께한 '댄저러슬리(Dangerously)' 무대를 사람들이 좋아해 줘서 무조건 같이하고 싶었고요. 승훈이는 '빌드업'에서 올라운더의 모습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발라드부터 힙합, 랩을 해서 앞으로 장르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민서는 원팀 미션에서 유일한 연습생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무대체질이구나 싶었고, 이 팀에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실력과 색깔만 생각한 조합이지만 멤버들의 케미는 눈에 띄게 좋았다. 멤버들 모두 간절함이라는 공통된 감정이 있어서다. 제이는 "'플라워(Flower)' 무대를 준비하면서 새벽까지 연습했는데, 우리 모두 이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열심히 했다. 이전까지는 같은 마음인 걸 예상할 수 없었는데, 그때 모두 다 이걸 너무 원하는구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승훈은 "처음부터 성격도 실력도 너무 잘 맞아서 놀랐다. 계속 노래하면서 웃었다. 드라마 같았다"고 말했다.

"우승 비결이요? 저희가 가장 팀처럼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가장 조화롭고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제이창이 똑똑하게 뽑은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를 모은 거구나 싶었어요."(빛새온)

"하고자 하는 방향, 결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선곡도 어렵지 않았고요. 제이창 말대로 스펙트럼이 넓은 친구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장르가 많았어요."(승훈)

팀의 롤모델은 비투비, 마마무다. 뛰어난 보컬 실력의 멤버들이 시너지를 내는 대표적인 팀이다. 각 팀의 메인보컬인 서은광, 솔라는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우리의 방향성과 가까워요. 보컬 정체성이 있지만 퍼포먼스도 보여주시잖아요. 육각형 퀄리티를 보여주는 분들이죠. 활동하면서 저희만의 정체성을 섞어서 다른 스타일을 찾아야겠어요."(빛새온)

보컬그룹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궁무진하다. 빛새온은 "꼭 라이브를 듣기 위해 콘서트에 가야 하는 팀이 되고 싶다. K팝 팬들은 물론 대중이 얼마를 주고서라도 꼭 콘서트에 가는 팀"이라고 했다. 제이창은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가수의 꿈을 꿨다. 비디유가 그런 영감을 주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 보컬 선생님들이 우리 노래를 예시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행복해했다. 민서는 "음원차트 1위를 하고 싶다. 음악방송에서도 1위를 해서 앙코르 무대를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승훈은 "연말에 바쁘고 싶다. 다양한 시상식 무대나 축하 공연을 하고 싶다"고 현실적인 바람을 전했다.

누구보다 민서는 데뷔 활동에 들떠있다. 이미 실전 경험을 해 본 다른 멤버들과는 다르게 이 모든 것이 새롭다. 민서는 한 톤 높아진 목소리로 "설레고 기대하는 게 많다. 한편으로는 겁도 생긴다. '빌드업' 1위란는 타이틀로 데뷔하니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고 했다. "지금 당장은 모든 스케줄이 재밌을 것 같다. 다음달 일본에서 진행되는 케이콘 재팬 2024(KCON JAPAN 2024)' 무대에 오르게 돼서 비행기에 타는 것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빛새온은 "옛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맞아. 나도 그랬었지'라고 공감이 많이 된다"며 웃었다.

이 모든 것들이 팬들 덕분에 이뤄진 결과라는 건 잊지 않고 있다. 투표를 하거나 공연에 찾아와주는 팬들 덕분에 무대에 설 수 있었고, 무한한 응원으로 지지해 준 팬들 덕분에 버텼다. 이제 보답할 일만 남았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빌드업'에서 봤던 모습들뿐만 아니라 훨씬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빌드업'을 보지 않은 분들에게도 비디유가 왜 비디유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제이창)

"프로그램 '빌드업'은 끝났지만 비디유의 빌드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빌드업의 여정을 같이 해주세요."(빛새온)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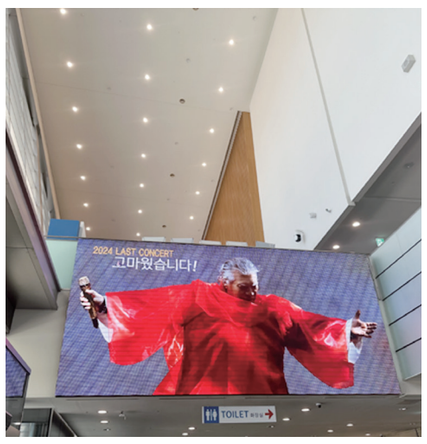
제니와 시너지 효과…지코 '스팟' 中 QQ뮤직 1위 차지

래퍼 지코가 그룹 '블랙핑크' 제니와 시너지 효과를 냈다.

지코 신곡 '스팟'은 27일 오후 7시 중국 최대 음원 스트리밍 QQ뮤직 신곡·급상승·핫트렌드 등 총 3개 부문 실시간 차트 1위를 찍었다. 이 곡은 늦은 밤 우연히 파티에서 만난 두 친구의 꾸밈없는 순간을 담았으며, 제니가 피처링했다.

중국 쇼츠 플랫폼 더우인에선 26일 오후 10시 해시태그 '#SPOT안무챌린지'가 챌린지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당시 해당 해시태그에 몰린 동시 접속자 수는 300만명에 달했다. '아무노래 '새삥'으로 국내 챌린지 신드롬을 이끌었는데, 스팟으로 해외에서도 반향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스포티파이에선 26일 데일리 톱송 글로벌 157위로 진입했다. 일일 스트리밍 약 150만회를 기록했다. 국내에선 27일 오전 9시 멜론 톱 100에 들었고, 지니, 벅스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나훈아, 은퇴 투어 맞다 "인천공연 이번이 마지막"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고 오늘 저는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인천공연은 이번 이 공연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연은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할 것처럼 할 겁니다."

가황 나훈아(74 또는 77)가 은퇴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27일 오후 3시 인천 송도컨베시아에서 연 전국 투어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LAST CONCERT))에서 이번 투어가 은퇴 투어임을 확인했다.

나훈아는 "여러분들 아드님 따님들이 힘들게 표를 구해서 보내주신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무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잘할 겁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수를 그만두기 전에 꼭 고치고 싶었던 게 몇 가지 있었다며 "그중에 한 가지가 와 우리는 좋은 말을 놔두고 앵콜(앙코르) 앵콜 하는지, 우리 말 중에 기가 막힌 좋은 말이 있습니다. '또!' 오늘 또 만하면 2부(오후 7시30분) 공연은 빵굽니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날 공연은 나훈아 가수 일대기를 정리하는 형식이었다. 기차가 달리는 영상이 상영됐는데 그의 데뷔해인 1967년으로 시작해서 2024년 멈췄기 때문이다. 과소문 루머 관련 기자회견을 한 2008년부터 컴백 콘서트를 연 2017년까지 기간엔 기차가 수면 아래를 잠수하며 가로지르기도 했다.

영상 속에서 기차가 역에 도착했고 이후 '고향역'을 시작으로 '18세 순이'까지 나훈아는 여섯 곡을 쉬지 않고 불렀다. 매 곡마다 옷도 갈아 입었다. 무대 위 반투명 막 뒤에서 바로 갈아 입었는데 근육질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다. '18세 순이'를 부를 땐 분홍빛 망사 상의에 치마를 입고 나오기도 했다.

일부 팬들은 나훈아의 은퇴를 반대하는 내용이 써진 플래카드를 들고 객석에 앉았다. '부산 싸나이' 나훈아를 상징하는 '기장 갈매기'를 넣어 "기장 갈매기는 계속 날아야 한다! 은퇴는 국민투표로"라고 적혀 있었다.

'캐럿과 협주곡 연주' 세븐틴, 늘어나라 하늘로 여의봉

그룹 '세븐틴'(SVT) 멤버들의 몸짓이 음표가 돼 날아다녔다.

팀의 '퍼포먼스 수장'인 호시가 들고 있는 지휘봉 끝에서 생명력을 얻는 움직임이었다. 그걸 시작으로 웅장한 세븐틴의 신곡 '마에스트로'가 27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세븐틴 투어 '팔로우' 어게인 투 서울(SEVENTEEN TOUR 'FOLLOW' AGAIN TO SEOUL)'의 화룡점정이 됐다.

강렬한 비트와 피아노 사운드가 특징인 댄스 R&B다. 이 곡의 퍼포먼스는 마치 클래식음악 협주곡을 보는 듯했다. 보통 협주곡은 화려한 연주기교를 구사하는 독주악기와 관현악을 위해 쓰인 기악곡을 뜻한다.

'다양한 우리가 모여 우리의 세계를 지휘해 나가고 흐름을 주도하는 최고가 되자'는 의미를 담은 곡으로, 세븐틴이 독주악기군 환호를 지르는 팬덤 캐럿이 관현악이 된 셈이다.

펼쳐지다가 이내 응집하는 군무가 특징인 곡인데 호시를 비롯 디에잇, 원우 등 지휘봉을 들고 있는 멤버들의 지휘에 따라 조화를 이뤘다. 화려한 색채의 동작들인데, 강렬함과 절제라는 오묘한 조합이 균질적으로 엉키며 생명력을 뿜어냈다.

그런데 '마에스트로'는 마냥 화합을 얘기하는 노래가 아니다. 앞서 예고된 티저 등에서 인공지능(AI)에 대적하는 내용이 따라 나왔는데 세상의 지휘가 아닌, 자신들의 지휘에 맞춰 살겠다는 결연한 에너지가 넘쳤다.

3만5000명 운집…신곡 무대 눈길

사실 최근 세븐틴의 노래 제목은 '음악의 신', '마에스트로'처럼 거대한 세계관을 기반삼는다. 일견 너무 무모한 게 아닌가 싶지만 거기에 맞게 폭발시키는 무대를 보면 절로 수긍이 된다. 이 넘치는 낭만주의를 받아줄 수 있는 게 대형 공연장이다. 상암벌은 그에 걸맞았다. 바람 때문에 무산됐지만 세븐틴은 열기구를 퍼포먼스도 준비 중이었다.

아울러 "다룸다림다(DARUMDARIMDA) 늘어나라 하늘로 여의봉(Hey)"(세븐틴 '손오공' 中)이 정말 늘어나 지휘봉이 된 듯한 느낌도 들었다. 오프닝처럼 근두운(공중에 떠 있는 열세 개의 리프트)을 타고 신통하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여의봉을 들고 다니는 세븐틴 멤버들은 지난 번 드론 퍼포먼스에 이어 항상 규모를 키운 무엇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왔다.

세븐틴은 케이스포돔(1만명), 고척스카이돔(1만7000석)을 거치며 이른바 계단식 성장을 해왔다. 한달 전에 공연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회당 2만8000명)에 이어 회당 7000명을 더 받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처음 입성한 것이다. 이곳에서 단독 콘서트가 열린 건 지난 2016년 지드래곤 이후 7년 만이다. 톱 가수 임영웅과 아이유가 내달과 9월 각각 이곳 무대에 오른다.

똑같이 '팔로우' 어게인 투 서울을 달았기 때문에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공연과 구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양 측면의 무빙 스테이지 사용 등도 같았다. 하지만 '마에스트로'를 비롯 경쾌한 리듬의 보컬팀 유닛곡 '청춘찬가', 거친 사운드가 귀를 파고드는 힙합팀 유닛곡 '라라리',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의 로컬 장르 아마피아노(Amapiano)를 내세운 몽환적인 퍼포먼스팀의 유닛곡 '스펠' 등 신곡 무대만으로 크게 차별화됐다.

국내 첫 스타디움 공연이었던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경기장이 드라마틱한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다면, 이번은 좀 더 다채로운 사운드의 피아노 협주곡이었다고 할까.

승관은 막바지에 올해 세븐틴이 10년차를 맞은 걸 짚으며 "멤버들과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수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편안하게 가수를 응원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세븐틴의 몫이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